

신안, 섬 생활사 박물관 짓는다

자은도 폐교에 2023년부터 150억원 투입...생활도구 등 문화자료 4800여점 수집

신안 자은도에 국내 최초로 섬 생활사를 엮을 수 있는 박물관이 세워진다.

신안군은 최근 대한민국 '섬'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국섬생활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끝냈다.

군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2023년부터 150억을 들여 '한국섬생활사박물관' 건립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안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25개 섬을 보유한 지자체다.

섬의 가치를 알리고 섬 문화의 다양성 홍보와 전승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연구·전승을 위해 국내 최초로 섬 생활사를 주제로 한 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물관은 2009년 폐교된 자은 두봉초등학교에 건립할 예정이다.

폐교 부지를 확보한 군은 2011년부터 목포대학교 도서관·연구원과 함께 섬 문화자료 조사와 수집을 지속했다.

지난 10여 년간 흑산·홍도·가거도 등 신안군 섬 생활사 자료뿐만 아니라 진도·완도·통영·옹진 등 전국 섬 지역 생활사 자료를 조사해 왔으며 조사 내용을 정리한 7권의 책도 발간했다.

그 동안 수집한 자료는 신안군을 비롯해 주요 섬



신안군은 한국섬생활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생활도구 등 문화자료들을 수집 보관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지역 생활도구 1254점, 우이도 문채옥 일가 생활문서 511점, 신안군 생활상 사진자료 1767점 등 총 4860점에 이른다.

수집한 생활도구는 섬의 자연·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며 섬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야기를 담고 있어 섬 생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대한민국을 지켜온 섬은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섬을 삶의 터전으로 일군 섬 주민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면서 "섬 주민이 만들어 사용한 생활 도구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서 영화로 온 가족 힐링하세요

작은영화관 기획전 31일까지 아리랑시네마...미나리 등 12편 무료

'2021 작은영화관 기획전'이 진도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주최, 사단법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진도아리랑시네마 주관 '2021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오는 31일까지 진도아리랑시네마에서 개최한다.

'영화가 만난 관계의 파동', '일상의 기쁨과 행복, 힐링 영화', '영화가 바라본 그때 그 시절' 등 5개 섹션이다.

배우 윤여정에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긴 영화 '미나리'를 비롯해 '가버나움', '나의 소녀시대', '남매의 여름밤' 등 12편의 다채로운 영화를 28회에 걸쳐 상영한다.

어린이 관객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란 놀자' 섹션에서는 작은영화관 기획전 특별 상영작 '로보 카폴리와 함께 배우는 안전 이야기'와 '반딧불이 단딘과 용감한 곤충 탐험대', '언더독' 등 어린이 눈과 귀를 사로잡을 애니메이션들이 준비됐다.

상영작 관람권은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교육 프로그램은 작은영화관에 전화 문의를 통한 사전 신청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지역 주민들



영화 미나리(위)와 반딧불이 단딘과 용감한 곤충 탐험대.

이 영화를 통해 잊고 지냈던 일상을 잠시나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무료로 열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전국 茶人 화합의 장 '초의문화제' 개최

15~16일 해남 대흥사 등서

제30회 초의문화제(草衣文化祭)가 15일부터 이틀간 해남대흥사 일원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초의와 만남'이라는 주제로 전국 차인들이 모여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차 관련 최대 행사인 문화제에서는 초의상 시상, 해남전국차도구공모전 시상, 전국차차리경연대회 등이 펼쳐진다.

30회 초의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국국제창작다례협회 김복일 회장의 '황실다례' 특강도 열린다.

해남전국차도구공모전에 출품된 70여개 다양한 차도구 작품 가운데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장려상 5점, 특선 10점 등 모두

50여개 작품이 선정돼 시상식도 한다.

문화제는 조선 후기 선(禪)과 차(茶)의 세계가 하나라는 다선일여(茶禪一如) 사상을 주창하며 쇠퇴해져 가던 우리 차의 부흥을 이끌었던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을 되새기며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초의문화제 집행위원장인 해남다인회 정진석 회장은 "초의문화제를 통해 우리차를 보급하고 초의스님의 다선일미 사상을 전파해 밝고 따뜻한 이웃의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는데 큰 역할이 될 것이라"며 "전국 차단체들의 정성스런 찾자리를 통하여 차산업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고 차를 통하여 가정에서 인성을 키우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는 행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코로나 타격 업소 긴급 민생지원금

1060곳 50만~100만원

영암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로 피해가 큰 위생업소에 긴급 민생지원금과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 민생지원금과 방역물품 지원은 정부의 5차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전남도의 지원(도비 40%)을 받아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지난 달 15일 기준 영업 중(영업 포함)인 유흥시설과 결혼식 피로연 식당, 식품접객업소 등 1060개 업소다.

총사업비는 6100만원으로 유흥시설 5층에 50만원, 피로연 뷔페식당에 10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식품접객업소에는 방역물품(마스크)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금지급 대상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 영암군청 여성가족과에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긴급 민생지원금 및 방역물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무안 영산강변 자전거길.

무안 남악·오룡신도시에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

무안군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남악·오룡신도시에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한다.

무안군은 올해까지 공영자전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범운행을 거쳐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대여소 10여 곳이 설치될 예정이며, 공영자전거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자전거 보충도 별도로 가입할 예정이다"며 "이용객 중심의 대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에도 힘써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목포 유달동 행복센터, 외달도 환경 정화활동

목포시 유달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5일 주민과 자생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협의회 등과 함께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외달도 바다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문학박람회, 문화재 야행 등 목포시가 역점적으로 준비 중인 행사들이 치러지는 10월을 맞아 관광지인 외달도의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봉사자들은 최근 반북된 호우와 강풍으로 유입된 해양 쓰레기와 해초 더미, 조개껍데기 등 80kg 마다 50개 분량을 수거했다.

송창현 유달동장은 "목포의 자산인 섬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섬 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